

도내 경찰관서 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고창경찰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8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학리인을 구축해 선거의 공정성을 증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부패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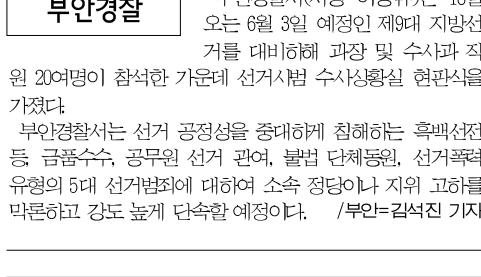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경찰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8일 수사팀 사무실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현관식을 개최했다.

장수경찰서는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학리인을 구성하고 협업 체제를 강화하여 선거사범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경찰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후)는 18일 오는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과장 및 수사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관식을 가졌다

부안경찰서는 선거 공정성을 증대하게 침해하는 허백선전 등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부패 유형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ESG 실천 헌혈 봉사활동 참여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ESG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18일,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장수군 보건의로원이 주관,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돼, 장수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됐다.

한편, 장수교육지원청은 향후에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과 정음 호남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이 뜻을 모아 대마도를 찾아 면암 최익현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수선사내 면암 최익현 선생 생애를 해설하고 있는 이형구 의장(왼쪽)과 수선사내 면암 최익현 선생 추모 후 기념촬영(오른쪽).

우리 근현대사 아픔·교훈 되새기는 계기

을사늑약에 맞선 면암 최익현 선생 추모행사

애국지사 최익현 선생의 순국 120주년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뜻깊게 거행됐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이사장 이형구)과 정음 호남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회장 유영준)이 뜻을 모아 대마도를 찾아 면암 최익현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맞서 전북 정읍 태인 무성서원에서 창의구국을 결의하고, 전국 팔도에 격문을 돌려 의병 봉기를 촉구했다.

당시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창의토적소'를 울리며 항일의병활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1906년 6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대마도로 강제 이송됐다.

이후 이즈하라 사지키바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선생은 1906년 11월 17일 겨내 옥중 순국했다. 올해는 선생의 서거 120주년이 되는 해다.

호남고 동창회원들은 졸업 40여 년을 맞아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대마도민환운동본부 의장 이형구 박사는 참가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역사 탐방 자료집'을 준비하고 직접 동행했다.

일행은 대마도 수선사 내 최익현 선생 순국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엄숙한 추모식을 진행하며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 방문단은 박제상 순국비와 영인 박사 현창비, 황윤길 현창비, 덕혜옹주 결혼봉축비 등을 차례로 참배했다.

또한 임오군관 및 갑신장병 보상비, 일본의 조선 침략 기반이 된 만관교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발탁한대가 전말한 도노자키 일대까지 둘러보며 역사의 현장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나라가 강하여 역사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저녁에는 대마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 특강도 진행됐다.

이형구 의장은 "대마도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40만 명이 넘지만 상당수가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관광에 그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의미 있는 날을 선정해 매월 최익현 선생 추모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 참여를 원할 경우 동행해 역사 해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탐방은 이형구 의장이 진행한 22번째 대마도 역사탐방으로 참가자들에게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만호 기자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시행 눈앞... 국민연금, 건보 등과 협약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약을 맺고 오는 4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이들의 자산을 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제도 안내와 교육, 시범사업 홍보를 비롯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을 대상



으로 한 경제적 학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주요 요양 관련 단체들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은 남원지점, 남원시에 선물꾸러미 나눔

남원시 관계자는 전북은행 남원지점(지점장 이미영)이 18일, 취약계층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꾸러미 120박스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꾸러미는 즉석밥, 라면, 소면, 칫솔, 치약 등 총 8종의 생필품으로 실속 있게 구성, 물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지역 어르신 위한 '사랑담뱃탕' 나눔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18일 8통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 '사랑담뱃탕 Day'를 열고 갈비탕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첫 시작 이후 어느덧 7회째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역 맛집인 갈비탕(대표 한상용)의 변함없는 후원으로 마련, 영양 가득한 갈비탕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인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라이온스, 남원시에 청소년 위생용품 기부

남원시는 관내 춘향라이온스클럽(회장 이주현)이 18일, 남원시에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500만원 상당(38상자·상자당30개입)을 이웃돕기 물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클럽이 지난 1월 24일, 교룡초 강당에서 열린 바자회 수익금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후원하게 됐으며, 성품은 남원시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등 지역 내 청소년 24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사랑회, 주천면에 이웃돕기 물품 전달

남원시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노환순)는 18일, 남원사랑회(회장 한병완)가 이웃돕기 물품으로 백미(10kg) 46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새봄과 함께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자 하는 남원사랑회의 나눔 실천으로,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의회, 고압송전탑 건설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허락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갑)는 지난 17일 고압송전탑 건설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위원회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입지선정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주민 의견 반영 절차 확대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35사단, 2026-1기 훈련병 255명 신병수료식 거행

육군 제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은 18일, 지난 2월 3일에 입영한 2026-1기 훈련병 255명을 대상으로 신병수료식을 거행하고, 이들이 정예 육군 전사로 거듭났음을 공식 선포했다.

2026-1기 훈련병들은 7주간 제식훈련과 개인회기 사격, 각 개전투, 행군, 대 드론 개인방호 교육 등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만호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입학식 개최... 총 183명 입학

고창군이 지난 17일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고창농촌개발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학장인 고창군수가 신입생 대표에게 직접 입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를 전했고, 농촌개발대학 1기 졸업생의 축하 공연으로 능숙한 악기 연주를 선보여 선후배 간의 따뜻한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올해 고창농촌개발대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총 4개 과정, 183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창업과(20명) △수박·멜론과(56명) △복분자과(42명) △블루베리과(65명)가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 현장을 오가며 총 20회 내외의 체계적인 전문 지식 이론 교육과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임실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최근, 관촌초등학교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을 위해 관계기관인 임실경찰서와 임실교육지원청이 함께 했다.

임실군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이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해당된다.

매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도로 주변의 위험요소 및 필요시설을 확인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3개소(관촌초, 신평초, 대리초)의 통학로 81.5m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울타리 교체공사를 추진중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